

『제국신문』에 나타난 세계 인식의 변주와 소설적 재현 양상 연구*

김현주**

1. 『제국신문』과 소설의 배치
2. 세계 인식의 변화와 주체의 모색
 - 2-1. 민족적 에토스, 상상의 주체로서 '조선혼'
 - 2-2. 근대적 사인(私人)과 직분(職分)의 탄생
3. 세계 인식의 소설적 재현과 일상의 제도화
 - 3-1. 풍속 개량과 일상의 제도화
 - 3-2. 아시아연대론의 파탄과 친미 메커니즘
4. 『제국신문』의 대중 계몽 방법과 역학적 한계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제국신문』에 수록된 신소설 9편을 중심으로 세계 인식의 변화에 따른 소설적 재현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하여 근대 대중 매체로서 『제국신문』의 독자성을 규명하는 데 있다.

대한제국기는 근대 국민국가를 구축하려는 사회적 상상 속에서 문화화의 주체와 방법을 모색하는 시기였다. 을사늑약과 정미7조약으로 인해 근대 국민국가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제국신문』은 풍속 개량과 실력 양성론에 근간을 둔 자강의 성격을 고수하면서도 소설에서 새로운 대중 계몽의 방법을 개발한다. 따라서 논설 등을 통해 '조선혼'을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3S1A5A8022219)

** 한양대학교, 조교수

소환하는 한편 근대적 사인의 탄생을 요청한다. 이러한 논설의 정론성은 소설을 통해 재현됨으로써 대중적 공감대를 확장한다. 특히 소설을 통해 풍속 개량을 통한 일상의 제도화를 추동하는 한편 대주체를 복원하기 위해 친미 메커니즘을 생산하고 확장시킨다.

그 결과 『제국신문』 소설은 신문이 폐간될 때까지 일상생활 세계 속에서 근대적 감각과 윤리, 가치, 일상의 제도화로의 지향과정을 꺾진하게 그려내며 근대적 주체를 창출하고 상상적 공통감을 구성하며 대주체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소설의 계몽 기획은 가치중립적인 일상화의 제도화로 수렴되고 약육강식의 국제적 역학관계에 유연하게 대응할 만한 정치적 개혁을 추동하지는 못한다.

(주제어: 『제국신문』, 세계 인식, 국민국가, 조선흥, 사인(私人), 직분, 풍속, 일상, 친미 메커니즘, 대중성)

1. 「제국신문」과 소설의 배치

대한제국 초기에는 문명국의 제도나 표상 체계를 본받으면 문명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근대적 군주체제를 지향하는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전통/근대, 야만/문명, 새로운 것/낡은 것의 대립 투쟁 속에서 후자를 쟁취하려는 거대한 운동이 고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본의 침략적 속성이 현실화되자, 고종은 서양과의 외교적 관계를 활용해 이를 적극적으로 타개하려 한다. 1907년 1월에 공개된 것처럼 세계 각처에 친서를 전달하기도 하고,¹⁾ 1907년 6월 제2

1) 공개된 친서는 고종이 1906년 1월 29일에 런던 크리븐지 기자에게 전달한 것이다. 『대한매일신보』, 1907.1.16.

차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기도 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제국의 자주권을 선포하고 지지 세력을 획득하려는 외교전을 펼친다.²⁾ 이러한 고종의 노력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지만³⁾ 도리어 빌미가 되어 고종의 강제적 하여로 일단락되고 군대해산권, 사법권, 경찰권 등 한일병합에 준하는 정미7조약(1907.7.24)의 체결로 이어진다. 또한 정치비판을 아예 봉쇄해 버리기 위해, 통감부는 신문지법과 보안법 등 출판통제를 법제화한다.

신문지법이 강화되기 전인 1907년 5월 17일에, 『제국신문』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편집체제를 대대적으로 바꾼다. 기존에 1면에 있던 논설란과 사회적 사건을 전하던 잡보란을 2, 3면으로 배치하고, 3면에 있었던 소설란과 국제 정세를 보도하는 외보란을 1면에 배치하고, 1면에 학문란을 신설한다. 이러한 편집체제의 변화는 “지금 이쪽을 당혹야” “간신이 기계를 구득”하여, “시국의 정형과 학문상 도흔 언론을 급급히 동포에게 알니지 않을 슈 업”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밝힌다.⁴⁾ 소설, 학문, 외보가 일본을 포함한 국제정세의 역학관계 속에서 문명화와 자주 국가를 건설하는데 유용한 지면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또한 위로부터의 정치 개혁이 일제에 의해 봉쇄된 상황에서 개인의 성장과 교화를 통해 자강의 논리를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더욱이 6월에는 창간 때부터 줄곧 주필이었던 이종일 대신에 정운복⁵⁾이

2) 최덕수,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1907)와 대한제국 언론의 세계인식-『皇城新聞』과 『大韓每日申報』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30호, 2008.2, 288쪽.

3) 조약 체결 직전에 이미 “다른 사람의게 집터까지 다 빼앗”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조성되었다. 황용성, 『고서』, 『제국신문』, 1907.6.28. 이후 『제국신문』 인용 시 매체명을 표기하지 않고 작가, 제목, 발표일만 명시함. 단 띄어쓰기만 현대어 표기법에 준함.

4) 『특별고북-본보 확장하는 일』, 1907.5.14.

5) 정운복(1870~1920)은 1907년 10월 3일부터 『제국신문』 사장직까지 맡게 된다. 황해도 평산에서 출생, 일본 오사카 상업학교를 졸업, 1896년에는 박영효 등과 함께 일본

새로 주필로 활동하면서 이러한 의지는 더욱 강화된다.⁶⁾ 학문란을 신설하여 『물리학』, 『본국력스』를 게재하기 시작한다. 연재 이유를 “인민이 되어 조국나라의 력스”를 알아야 “그 스상이 즉쥬홀”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⁷⁾ “남의 의뢰”에서 벗어나 자주 사상, 인민의 의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실력을 양성시키는 지면임을 강조한다. 소설란의 필진 역시 이인직에서 이해조로 변경되는데, 이 역시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국신문』은 부녀자와 하층민을 계몽하는 대중매체라는 자기규정하에 풍속 개량과 실력 양성론에 근간을 둔 자강의 성격을 고수하면서도 대중 계몽의 방법을 논설 중심에서 학문의 보급과 소설적 재현 중심으로 이동한다. 여전히 논설, 별보, 기사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외교권을 일혀서 렬국 경징흐는 마당에 나아가지 못”할 뿐 아니라, “너정의 대쇼스틀” 간섭받는 보호국이 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강론을 모색한다. 이에 따라 대중체를 대체할 수 있는 상상적 주체로서 ‘조선혼’과 근대적 사인(私人)의 직분을 강조한다. 학문란과 소설란이 1면에 배치되면서 논설의 정론성을 구체화시키고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한다. 즉 학문란을 통해 “오날날 급히 힘쓸 일”인 문명지식을 설파하여 대중독자의 민지를 확장시키는 한편,⁸⁾ 소설란을 통해 대중들의 생활세계와 감정구조를 반영하여 일상의 제도화를 기획한다. 또한 그것을 추동하는 근대적 주체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대중독자들에게 일상

과의 연대를 주장하였다. 『제국신문』에서는 주로 ‘탄희잉(吞海生)’이라는 필명으로 179편의 논설, 별보, 기사 등을 게재하면서 매체의 정론성을 구축한다. 이대형, 『정운복의 『제국신문』 논설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0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14, 217쪽.

6) 『본샤의 행복과 본기자의 희입』, 『제국신문』, 1907.6.7; 『학문-문명의 내력』, 『제국신문』, 1907.6.7; 정운복, 『샤설-첫인사』, 1907.6.8.

7) 『본국력스』, 1907.6.9.

8) 『상당흔 권리툼 보존코져 흐면 상당흔 지식이 필요함』, 1907.8.6.

의 근대화와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과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시키는 계몽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학문란에는 「국민의 수지」, 「윤리학」 등 “각종 학술을 만이 괴지하”⁹⁾고 소설란에는 조국애, 풍속 개량, 미국 유학 등 다양한 문명 표상 체계를 재현하는 신소설을 배치한다. 특히 학문란이 1908년 10월로 중단된 것과는 달리, 1면의 연재 “소설이 연설보다”¹⁰⁾ 더 출판통제 법제화와 재정란 심화를 타개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인식되면서 「고목화」, 「홍도화」 등이 폐간 때까지 연재된다.¹¹⁾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간 학계에서는 『제국신문』이 정치 개혁을 도외시하고 풍속 개량만 계몽시키는 체제 순응적 매체라고 폄하해 왔던 것도 매체의 독자성과 정론 방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오해는 최근 발굴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국신문』의 매체적 기능과 독자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면서 교정되고 있다.¹²⁾ 이십

9) 1907.5.20. 『제국신문』의 학문란에 정미7조약 이전에는 물리학과 본국역사가, 이후에는 국가론, 가정학, 윤리학, 위생학이 게재된다.

10) 「홍도화」가 연재될 때 게재된 논설의 일부이다. 「론설」, 1908.9.12.

11) 신소설 연재 이전에 92편의 단형서사가 게재되었다.(김영민·구장률·이유미 편, 『근대계몽기 단형 서사문학 전집(상)』, 소명, 2003, 275-545쪽) 논설, 사설, 소설란에 실린 단형서사들은 소설적 지위를 부여할 만큼 필진성이나 개연성을 구현하지 못한다. 1면에 연재된 9편의 신소설은 다음과 같다. 국초(菊初), 「혈(血)의 누(淚)」(하편), 1907.5.17-1907.6.1; 동농(東農), 「고목화(枯木花)」, 1907.6.5-1907.10.4; 동농(東農), 「빈상설(鬢上雪)」, 1907.10.05-1907.12.25(1부)/1907.12.26.-1908.2.12(2부); 동농(東農), 「원앙도(鴛鴦圖)」, 1908.2.13-1908.4.24; 열지(悅齋), 「구마검(驅魔劍)」, 1908.4.25-1908.7.23; 열지(悅齋), 「홍도화(紅桃花)」, 1908.7.24-1908.9.17; 열지(悅齋), 「만월대(滿月臺)」, 1908.9.18-1908.12.3; 열지(悅齋), 「쌍옥적(雙玉笛)」, 1908.12.4-1909.2.12; 열지(悅齋), 「모란병(牡丹屏)」, 1909.2.13-(11회만 확인)

12) 김복순, 「『제국신문』의 힘: “여성의 감각”의 탄생」, 『민족문화사연구』, 민족문화사연구소, 2013, 343-385쪽; 김기란, 「1907년 이후 『제국신문』의 대중문화적 의의-신소설과 신연극의 상호참조를 통한 여성의 멜로드라마적 형상화」, 『여성문학연구』 31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45-75쪽; 김복순, 「『제국신문』 학문론의 실학적 변용과 학지(學知)의 타자성 -1907년 이후」, 『여성문학연구』 31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7-44쪽; 이대형, 「『제국신문』 소재 정운복의 논설 연구」, 『대중서사연구』 31호, 2014,

제도 정미7조약 전후로 『제국신문』에 나타난 세계 인식의 변화와 소설적 재현의 연관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직 발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논문은 『제국신문』에 수록된 신소설 9편을 중심으로 세계 인식의 변화에 따른 소설적 재현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근대 대중매체로서 『제국신문』의 독자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먼저 정미7조약 전후로 변화된 세계 인식과 그에 따른 『제국신문』의 편집체계와 정론성의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세계 인식의 변화와 주체의 모색

2-1. 민족적 에토스 상상의 주체로서 '조선혼'

1890년대 근대 신문매체들은 “우리나라 법도와 풍속을 날마다 고쳐 몇해 안에 나라이 태서 문명제국과 동등히 되어 늙의게 슈치를 받지 안”을 것이며, “세계의 문명을 진취하”면 “국가의 흥운을 증흥하야 고유한 국권이 점점 튼튼”해져서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근대 국민국가 건설이 가능하다는 낙관적 전망과 확신을 보여준다.¹³⁾

그러나 정미7조약 체결은 고종 중심으로 한 위로부터 기획한 근대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소망의 좌절과 대주체(Subject)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 시기 『제국신문』에 ‘동포’, ‘국민’이라는 용어가 약 270회 가량 언급된 것도 이러한 상실감에서 비롯된다.¹⁴⁾ 특히 동포라는 용어는 지금은

207-238쪽.

13) 『론설』, 1898.9.1; 1900.10.4; 1902.9.20; 1904.11.19; 『론설』, 『독립신문』 1896.8.4.

14) 『제국신문』의 『론설』, 『별보』, 『기사』를 살펴보면, 동포/국민이라는 용어가 1907.7.24~12.30에 108/61회, 1908년 1~12월에 411/165회 반복된다.

“빈 터”¹⁵⁾가 되었지만 그 자리에 근대 국민국가를 회복하려는 집단적 의지를 내포한 용어로 자주 사용된다. 이 용어는 열강의 침탈에 대응할 수 있는 힘, 곧 문명에의 열망과 일제의 침략성에 대항할 공동체적 유대의 필요성과 기대감을 내포한다. 따라서 개인 간의 수평적 연대를 강조하고 ‘모두 다 같은 형제’라는 수사학적 상상력을 강하게 작동하면서, 신분제의 위계화를 초월하는 근대적 개념으로 의미화된다.¹⁶⁾ 그런데 대주체의 상실을 대체할 동포나 국민의 구심점인 상상의 주체가 “대한제국 국혼”, “혼탁”, “기천년간에 명명흔 령흔” “너 나라를 사랑흔 므암”, “이천만 국민을 스랑흔 정신” “동포 스랑”, “죽국정신(自國精神)”¹⁷⁾이라는 다양한 기표로 표상된다. 이들 언표들은 국권 침탈의 현실적 기반을 극복하고 민족적 유대와 지속성을 낙관하고 문명화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는 민족적 에토스(ethos)로 작동한다.

영국사람이면 영국혼이 있고 미국사람은 미국혼이 있어서 나라마다 다 죽고 나라 칭각하고 위흔 혼이 있어서 지금 일본사람으로 말하면 소위 **딤희혼**이란 것이 있나니 딤희혼이란 것은 일본이 본딤희국인 고로 나라 스랑흔 정신을 딤희혼이라 험나니 일본이 더렷케 부강흔 싸툼이 그 나라 인민마다 딤희혼을 가진 연고라 험노도다(중략 인용자) 우리가 교육을 아모리 잘 험야 턴하의 물을 것이 업 더터도 **쥌션혼**이 업스면 쓸디업고 무삼 회를 아모리 잘 험야 전국 인민이 다 회원이라도 쓸 디 업나니 즈녀데질을 학교에 보너야 교육은 식히던지 이 나라 칭각흔 정신만 비양험거드면 국권도 회복험 것이오 문명국도 되야볼 줄노 칭각험 지로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세상만물에 다 **골즈**가 있나니¹⁸⁾

15) 『론설』, 1907.8.7.

16) 권보드래, 『동포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성』, 이화여대 한국문학연구원,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사, 2008, 125쪽.

17) 『괴서』, 1907.9.15; 『별보』, 1908.1.30; 『괴서』, 1908.7.11; 『별보』, 1908.1.22; 『괴서』, 1908.3.21; 『론설』, 1908.4.28; 『별보』, 1908.1.23; 『별보』, 1908.23; 『론설』, 1907.11.28.

18) 『괴서-나라마다 죽국을 위하난 혼이 잇는 일』, 1907.5.21.

위 인용문은 정미7조약 체결 전에 수록된 『기서』의 일부이다. 인용에서 보듯 “혼이란 것은 곳 정신과 갓” 혼 것으로 영국의 ‘영국혼’, 미국의 ‘미국혼’, 일본의 ‘디화혼’ 등은 각국 문화의 핵심 원리가 된다. 다른 문명국처럼 대한제국도 ‘조선혼’을 지니고 문명화를 추동한다면, “남의 로예”가 되지 않고 “국권도 회복할 것이오 문명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선혼’은 “본래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공동체”인 민족 개념과 유사한 의미층을 지닌 개념으로,¹⁹⁾ 단군 이래로 오랜 기간 동안 동질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민족이라는 특별한 결속감을 형성해 왔다고 이해하는 상상의 공간적 경계로 사용해 왔다.²⁰⁾ 이러한 점에서 민족적 에토스를 강화하는 다양한 기표들은 ‘조선혼’으로 수렴할 수 있다. ‘조선혼’은 민족국가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추동하는 상상의 주체이자 국가/정부의 이분화에 따른 대주체의 상실감을 보상하는 개념이다. ‘조선혼’의 소환은 1900년 초반까지 선 문명개화, 후 애국심을 주장했던 『제국신문』의 정론 방향과도 확연히 구별되며,²¹⁾ 정치 개혁을 당면과제로 삼았던 동시기의 『황성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과도 구별된다.²²⁾

『제국신문』이 창간 초기부터 고수한 국문 표기를 강조하거나 신문의 계몽적 역할과 구독 촉구의 글에서도 민족적 에토스는 심화된다. 특히 “나라의 말”의 강조는 “너 나라의 정신을”²³⁾ 강화시키는 추동력으로 언

19) 베네딕트 앤더슨, 윤흥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 2002, 25쪽.

20) 『제국신문』에서 ‘조선혼’이 자주 언급되는 것은 정운복이나 이해조 등이 신채호와 함께 기호흥학회, 대한협회 등에서 활동한 사실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박정심에 의하면, ‘조선혼’은 신채호가 비주체적인 노예사상의 극복하는 방안으로, 타자와 관계 맺는 주체로서 민족국가를 내세운 ‘국민의 혼(魂)’과 유사한 개념이다. 박정심, 「근대 유학인식의 변화에 대한 연구」, 『동양고전연구』 26호, 동양고전학회, 2007, 61-67쪽.

21) 『문설』, 1901.5.1; 『특별고백』, 1901.5.4.

22) 『황성신문』, 1907.1.31; 1907.2.6; 1907.2.7;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2.3.

23) 『별보』, 1908.6.11.

급된다. 신문, 교육, 학회 월보, 심지어 산림법과 같은 법률용어도 “빅성이라도 아지 못흐는 폐가 업시”²⁴⁾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국문 사용이 필요하다고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1908년 11월 20일 논설 전문이 검열로 완전히 삭제되는 등 통감부의 출판통제가 심화되면서 민족적 에토스를 상기하는 용어나 정론적 논설은 점차 지면에서 사라진다.²⁵⁾

2-2. 근대적 사인(私人)²⁶⁾과 직분(職分)의 탄생

고종이 하야한 이후 순종이 등극하였지만, 정부의 실권이 통감부로 이양되어 대주체로서 역할과 지위를 회복하지 못한다. 이때 『제국신문』에는 “희망홀 여디가” 없다는 한탄의 글들이 자주 게재된다. 그럼에도 “일반 인민의 성질이 문밖게 나아가기를 슬허하야”, “한국 빅성으로 하야끔 조곰도 진보하지 못흐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빅성”, “어리석은 인민”에 머물러 있으니, “인종이 소멸홀 참혹흔 디경”에 이르렀다는 절망적 인식과 자탄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반복적으로 보도된다.²⁷⁾ 그 결과 “우리나라가 이 디경 된 것은 너 힘을 길이지 안코 남을 의지”한 결과라는 자각과 “이전보다 빅 비나 더 힘을 써” “써러진 국권과 도탄에 싸진 동포”를 구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능동적 주체(subject)를 요구한다.²⁸⁾

24) 『산림법에 디하야 동포의 경성을 직촉홈』, 1908.4.3.

25) 1907년 7월 24일 반포된 신문지법은 정간, 벌금, 체형 등의 형사 처벌이 가해질 정도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켰다.(최기영, 『대한제국기 신문연구』, 일조각, 1991, 265-280쪽) 『제국신문』도 1907.12.8에는 논설 일부가 삭제되고, 1907.11.29, 1908.10.30, 1908.11.20, 1908.11.27에는 논설 전문이 벽돌 처리된다.

26) 『제국신문』에서 국민, 기인, 스인, 나, 자괴라는 용어로 혼재되어 사용되지만, 이 글에서는 일상의 근대화를 추동하는 존재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매체 한정적 용어로 근대적 사인으로 통일한다.

27) 『론설』, 1907.8.20; 1907.8.14; 1907.8.15; 1907.8.24.

“국민이 시국을 짐작하야 억지로 세력에 부퉁겨 변하지 말고 저마다 미리 변하야” “식롭고 쏘 식로운 스상을 날노 싱각”하는 주체, “다 즈기 모 양티로 사는 령혼” 즉 “넌 정신으로” 성별이나 계급적 차별 없이 내 의견을 키우고 “나라책성의 의무를 다 하느” 주체가 요청된다.²⁹⁾ 이 존재는 “각기 정신을 가다듬”고 “직척이 중하고 크”다는 자각과 의지를 가진 자율적 주체이며,³⁰⁾ 국권 회복과 문명개화라는 사회적 상상을 공유하고 형성하는 근대적 주체이자 동포를 능동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민족적 주체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닌다. 이 존재를 식민 조약을 체결한 “정부 관리의게 부탁할 슈 업”으며 “벼살하느 사람”인 전근대적 공인(公人)에게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언론과 그 행동에 즈유를 보전하야 넌 마음과 넌 뜻티로 힘”할 수 있는 존재인 근대적 사인(私人)의 탄생을 촉구한다.³¹⁾

그러므로 『제국신문』에서 사인(私人)은 “나라를 잘 사랑하느 자” 곧 문명개화와 민족적 에토스를 추동할 수 있는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자 “몬져 그 몸을 닷”은 후에 공적 영역의 직분(직업윤리)을 수행하는 윤리적 존재로 호명된다.³²⁾ 물론 “귀천과 빈부를 물론하고 즈기의 소견으로 싱각하며 말하느”³³⁾ 즉 가문이나 계급, 국가의 통치권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사적 영역이 존재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근대적 인권 개념이 내포된 개념이다.

28) 『문설』, 1907.8.22; 1907.12.7; 1907.9.11; 1907.9.13; 1907.10.8.

29) 『문설』, 1907.5.17; 『괴서』, 1908.2.15; 『문설』, 1907.10.6; 1907.8.15.

30) 탄희싱, 『락십하지 말일』, 1907.7.28.

31) 탄희싱, 『공인과 스인의 구별』, 1908.7.17.

32) 탄희싱, 『넌 몸이 곳 나라오 나라가 곳 넌 몸』, 1908.2.9. 직분은 기독교적 정신에 입각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에서 발생하여, 근대 국민국가를 추동하는 윤리적 덕목이 되었다. 근대 초기 유교적 윤리의식인 직임과 혼재되어 사용되는데, 차별성의 규명은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33) 탄희싱, 『넌 정신은 너가 차릴 일』, 1907.10.6.

문명한 나라에 보너여 **농상공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익힌 연후**에야 비로소 그 부모의 깃분 일이오 즈기 신상에도 유익한 일이라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부즈런히 공부함은 사툼의 자녀된 자의 직분이라 흘지로다³⁴⁾

각기 집에 도라가 농스틀 흐든지 장스틀 흐든지 공장을 흐든지 학문을 흐든지 힘과 정성을 다흐야 우의로 늙은 부모를 봉양흐며 아리로 어린 즈녀를 교육흐야 우리의 지식과 직력이 넉넉흐면 필경 턴운이 도라오는 썸에 국권을 회복홀 도리가 잇스려니와³⁵⁾

인용문에서 보듯이 직분은 자율적인 직업 선택, 호혜성과 신분의 평등에 기초한 근대적 계약 관계를 전제한다. 그런데 『제국신문』 논설에서는 “권리에 짜라서 의무가 오고 의무에 짜라서 권리가 오”는 계약 관계와 평등 관계에서 공공성을 지키려는 의무이며, 직업윤리뿐만 아니라 근대 국민국가를 추동할 국민의 윤리까지 그 의미가 확장된다. 따라서 가정 운영, 교육 확대, 풍속 개량, 농공상업의 중사, 국권 회복까지 ‘썸을 짜라’ 적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용어로 차용된다.³⁶⁾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제국신문』이 편집체제 개편 이후 “정치사회던지 교육사회던지 실업사회”든지 사인의 윤리적 덕목으로 직분을 호명하지만,³⁷⁾ 정미7조약 이후 특히 ‘농상공’에서의 직분이 강조된다는 사실이다.³⁸⁾ 이는 신문 독자층과 신흥 상공업자 출신인 이문사(以文社) 관계자들이 신문 운영에 관여해 왔던 것과도 연관이 있다. 그러나 경성박람회

34) 슈표교 리용섭, 『괴서』, 1908.2.11.

35) 『론설』, 1907.8.2.

36) 운정, 『론설』, 1907.7.18; 현진명, 『남을 원망흐지 말고 너 허물을 생각흐야 고칠 일』, 1907.7.16.

37) 『론설』, 1907.5.22. 이 외 1907.5.27; 1907.6.1; 1907.6.8; 1907.6.21; 1907.6.25; 1907.7.13 등

38) 『론설』, 1907.9.6; 1907.9.15; 1907.11.26; 1908.1.7; 1908.6.29; 1908.6.30; 1908.6.30; 『샤설』, 1907.6.8; 『별보』, 1908.8.22 등. 식산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사(士)의 직분에 대해 언급했지만 수사학적 서술로 여겨진다. 포와싱, 『괴서-식산론』, 1907.11.3.

를 주관하고도 출품한 물건들이 “심히 령성하니 참 붓그럽고 한심”³⁹⁾한 상황을 초래하였으며 “문명 부강을 자랑하는 나라는 모다 상업이 크게 발달”하였으나 상업이 “스민(四民)의 최하등이 되”어 발달한 도리가 없었다는 현실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이다.⁴⁰⁾ 신분의 위계화와 폐쇄성은 문명화 지체와 자주권 상실이 주요인이라고 판단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제국신문』 논설에서는 직분을 가문(家門) 중심의 당리당파로 움직이는 전근대적 공인과 그들이 명분으로 삼는 직임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능동적인 주체의 덕목으로 규정짓는다. 즉 근대인으로서 ‘내 정신’을 수련하는 개별자의 수신(修身)에서부터 “한국의 광복”에 기여할 공적 영역의 근대적 공인(公人)의 정치적 실천까지가 모두 “국민 된 직분”이며 사인의 윤리적 덕목으로 당위화한다.⁴¹⁾

그러나 1908년 말부터 『제국신문』 논설에서 민족적 에토스가 점차 미약해지면서 상공업, 학교에 관한 법규 등 근대적 제도의 신설이 정론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조선훈”의 회복을 명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치 중립적인 일상의 제도화와 사인의 직분은 내부 식민체제로 포획될 수밖에 없게 된다.

3. 세계 인식의 소설적 재현과 일상의 제도화

『제국신문』의 편집체제의 변화로 3면의 소설란이 1면으로 이동하면서, 글쓰기 방식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 3면의 소설란에는 주로 전(傳)이 실렸는데, 충, 인 등 유교적 이념과 실학적 사유를 담아내는 설화적

39) 『론설』, 1907.8.31.

40) 탄희성, 『풍속기량론』(七): 상업계의 폐풍을 고칠 일, 1907.10.18.

41) 『론설』, 1907.1.24; 1907.5.23.

이야기였다.⁴²⁾ 그런데 1면에 배치되면서 문명개화와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사회적 현안과 국문이 자연스럽게 결합된 신소설이 연재된다. 특히 신소설에는 신문의 주요 독자층인 부녀자나 하층민의 삶에 밀착된 다양한 사회상과 대중의 감정구조가 투영됨으로써, 현실의 핏진성과 흥미가 배가된다. 단순히 지면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소설의 기능과 내용이 달라진 것이다. 『제국신문』 주필 정운복은 신소설을 “우리나라 사람의 나라 사랑하는 마암이 부족한 원인”이자 “우리나라 사람이 즈그의 힘힐 바 의무와 직분을 다키 안이하고 귀신 섬기기를 일삼는 원인”인 구소설과 구별짓는다. 특히 국문 신소설을 국가사회의 풍속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서 독자에게 “구탁”, “구습을 일신하게 고치고 문명흔 식 정신”을 계몽하는 한편 민족적 에토스를 생산·확대하는 근대적 독물(讀物)로 간주한다.⁴³⁾ 게다가 검열을 피하고 지면과 독자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유용한 연재물로 활용한다. 『제국신문』의 신소설은 1907년 신문지법의 발효로 야기된 재정란의 타개와 자강론의 전개라는 매체의 당면과제를 동시에 타개하는 도구로 생산되고 점차 소설미학을 구성해 나간 것이다.

『제국신문』과 마찬가지로, 동시대의 신문인 『대한매일신보』와 『대한신문』도 자강론을 계몽하기 위해 국문소설을 활용한다. 『대한매일신보』 국문판은 1907년 발간과 함께 「라란부인전」을, 그 후 「국치전」, 「슈군의 데일 거룩흔 인물 리순신전」, 「미국독립스」 등 9편의 소설(1907.5.23·1910.3.5)을 수록하여 국권 회복의 필요성을 계몽한다. 반면에 1909년에

42) 1906.9.18~1907.4.19까지 12편이 소설란에 수록되는데, 그 가운데는 박지원의 「허생전」 국문 번역도 있다.

43) 탄해생, 「소설(小說)과 풍속의 관계」, 1908.5.14. 정운복은 대한자강회에서 활동할 때, 이미 문명개화의 기초는 개인의 교화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매일신보』, 1906.1.6.

발간된 『대한민보』에는 12편의 소설(1909.6.2~1910.8.27)이 게재되어 『제국신문』처럼 대부분 현실적 생활상을 통해 국민국가 건설을 직·간접적으로 계몽한다.⁴⁴⁾ 그런데 『제국신문』 소설이 약 40~100회 연재된 것과는 달리, 『대한민보』에 실린 『소금강』(48회)을 제외하고는 두 신문의 소설들은 1회성 단편소설이 실릴 정도로 상대적으로 짧은 이야기이다. 그 결과 『제국신문』 소설처럼 대중 독자의 삶을 팝진하게 구체화하거나 일상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폭넓은 공통감을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제국신문』도 소설란이 1면에 배치된 후 처음 연재된 이인직의 『혈의 누』(하)은 11회로 중단된다. 그러나 1907년 6월 5일부터 신문이 폐간될 때까지 이해조의 장편소설 8편이 지속적으로 연재된다. 공교롭게도 정운복이 주필이 되는 시점과 이해조가 소설란을 전담한 시점이 유사하다. 정운복이 『제국신문』의 정론성을 형성하고 추동할 수 있는 동반자로 이해조를 영입했음을 의미한다. 당시 신진문사였던 이해조는 『물리학』을 번안·연재할 정도로 외국어 실력이나 문명지식에도 능통한 인물이었다.⁴⁵⁾ 『물리학』⁴⁶⁾이 문명사회 발달의 기초이자 사회적 관계에서의 의무

44) 김영민, 『한국 근대계몽기 “소설”의 정체성 연구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7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132쪽; 신지영, 『『대한민보』 연재소설의 담론적 특성과 수사학적 배치』,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3, 53-67쪽.

45) 학문란을 담당한 박정동은 근대 학문 책자를 발간할 정도로 전문가인 반면, 이해조는 1901년에는 양자이문 의관, 1904년부터는 국민교육회, 대한협회 등의 학회 활동과 낙연의숙, 신야의숙, 돈명의숙의 숙감 등의 교육 활동, 국채보상운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문사로서는, 『소년한반도』에 한문소설 『영영전(英英傳)』을 차용한 『잠상태(峯上苔)』(『소년한반도』 제1~6호, 1906.11~1907.4)의 발표가 고작이었다.

46) 이해조의 『물리학』(1908.6.20-10.27)은 모토우 유우지로(元良勇次郎, 1858~1912)가 1902년에 편찬한 『中等教育 元良氏倫理書』상권을 저본으로 삼았다. 저본의 내용을 선별하고 추가하는 한편 문답체 형식으로 전환하여 근대적 윤리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배정상, 『이해조 문학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12, 48쪽.

인 근대적 개별/보편 윤리를 실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국신문』의 매체 특성을 규정하고 정향한다. 이미 정운복이 「정치기량보담 풍속기량이 급함」⁴⁷⁾에서 근대적 일상을 제도화시키는 방안으로 근대적 법제도와 실생활에서의 윤리적 실천의 병행을 강조하고, 「풍속기량론」⁴⁸⁾에서 개가, 내외법, 육아, 상거래 등 일상영역에서의 근대적 윤리 실천을 촉구한 것과도 연관 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제국신문』 소재 소설은 대중독자에게 실생활에서의 윤리적 실천을 촉구하고 사회적 현안을 자기 문제로 각성하도록 계몽하는 유용한 도구라는 관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3-1. 풍속 개량과 일상의 제도화

『제국신문』이 발간·유통되던 시기는 근대적 가치와 제도가 정치적으로 기획되고 자아를 정립하려는 주체로서의 이야기와 욕망들이 역동적으로 일상에 투사되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서서히 분리되던 때이다. 일상은 자아의 의지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삶을 기획하고 실현하는 생활세계의 장소이다. 자아는 봉건적 질서인 ‘가문/문벌’에서 분리되어 자아의식에 가장 가까이 있는 관계적 타자인 ‘가정’ 안팎에서 일상을 조직하고 경험하고, 자아의식은 가족과 가정이라는 관계망 속에서 새로이 구성된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제도화는 일상을 제도화하는 시발점이며, 새로운 자아와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고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핵심 단위가 된다. 특히 위로부터의 계몽의 기획이 차단되고 개

47) 탄희싱, 「정치기량보담 풍속기량이 급함」, 1907.10.9.

48) 「풍속기량론」, 1907.10.10~11.5. 정운복이 10회, 김낙수가 2회, 윤정원이 1회 분을 집필한다.

인의 자각과 실력 양상에 의존한 계몽의 기획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가정은 당연히 일상의 윤리와 근대적 습관을 습득하고 스스로를 규율하면서 근대적 사인을 생산하는 제도로 주목받게 된다.

문명개화와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사회적 현안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근대적 사인의 생성이 주요한 사안이며, 근대적 사인을 생성할 가정의 일상문화가 제도화되는 것은 정치개혁보다 더 시급한 과제로 부상된 것이다. 특히 『제국신문』은 “다른 신문보다 재미있고 부인과 무식한 로동자식지 보기 쉬운 신문”으로 “나라이 기명하랴면 부인의 지식이 못져 열녀야”한다는 소명의식을 자주 피력한 바,⁴⁹⁾ 여성의 삶을 구속하는 조혼, 개가, 축첩 등의 결혼 풍속을 타파할 계몽의 대상으로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전근대적인 가정풍속을 금지하는 법률은 갑오개혁 때 이미 제도화되었으나 대중적 정서는 여전히 전통적 삶의 방식과 그것을 지탱하는 전통 윤리를 탈피하지 못했다.

이러한 당대 대중의 정서가 신소설에서 계몽의 대상으로 반복 재현된다. 조혼의 폐습도 「혈의 누」(하), 「홍도화」, 「모란병」 등에서 일상의 근대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다뤄진다.⁵⁰⁾ 1907년에 허혼 연령을 높이는 조칙을 시행하였지만⁵¹⁾ “불목일로 흥레하는 자도 잇고 또 밤에 몰니 혼인 지너는 자가 허다”할 정도였다. 특히 조혼은 병리학적 측면에서는 신

49) 「괴서」, 1907.9.15; 「론설」, 1907.11.26.

50) 『제국신문』에서도 1900년대 초반부터 조혼은 매매혼 풍속과 같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곤 했다. 1900.5.11; 1901.3.25; 1903.5.13; 1903.6.20; 주시경, 「론설 일즉이 혼인하는 폐」, 『가정잡지』 1권 4호, 1906.9. 6쪽; 「조혼의 폐해」, 『가정잡지』 창간호, 1906, 18-21쪽.

51) 1894년 갑오개혁 때 조혼금령을 내리고 남 20세, 여 16세 이상만 결혼할 것을 법규화한다. 1907년에 순종은 남 17세, 여 15세로 허혼 연령을 높이는 조칙을 내린다. (「조혼 금지의 조칙」, 1907.8.17; 「조혼금지령 려행(早婚禁止令勵行)」, 1908.10.10) 이런 조칙을 피해 학부대신의 15세 아들과 민영소의 15세 딸은 야간 혼례식을 감행한다. 『대한매일신보』, 1907.8.18; 『공립신보』, 1907.9.20; 「혼인문답」, 『황성신문』, 1907.8.23.

체 발달을 저해하고 근대적 교육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자율적으로 선택한 자기 길로서의 직분적 역량과 이지 능력을 키워 근대적 사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풍속인 것이다.⁵²⁾ 조혼을 둘러싼 갈등은 전통적 윤리와 근대적 윤리,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갈등으로 표출된다. 『혈의 누』(하)을 보면, 조부와 부모는 유학 중인 손녀에게 조혼을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할 것을 종용한다. 『홍도화』⁵³⁾에서는 조혼의 폐단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직각(李直閣)은 “남과 갖치 머리도 깎고 양복도 햐야 이 사회 더 사회로 도라단이며 국가 독립이니 인민 즈유니 입으로논”는 문명 진보를 외치지만 딸의 조혼을 고집하는 열개화꾼으로 묘사된다.⁵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딸 태희를 여학교에 보내지만 학업을 중단시키고 조혼시켜 청상과부로 만든다. 태희는 근대적 사인(私人)으로 성장할 기회를 상실하고 불행에 빠지고 만다. 『모란병』⁵⁵⁾에서는 가산을 탕진한 아버지가 어린 딸 금선을 돈을 받고 민며느리로 들여보내지만, 사기를 당해 기생으로 전락시킨다. 이처럼 상호텍스트성에 의해 조혼은 개인의 신체 발달을 저해하고 화목한 가정 만들기를 저해하는 요소이자 자아가 사인으로 독립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반복적으로 재현되어 넓게는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원인으로 묘사된다.

52) 대한제국에서 허혼 연령은 15세 이상이지만, 일본에서는 남 22세, 여 19세 이상이었다. 탄희성, 『풍속기량론3-압계혼인의 폐풍을 곳칠 일』, 1907.10.11-12.

53) 『제국신문』 연재는 단행본 『홍도화』(상)에 해당된다. 배정상은 『홍도화』(하)도 『모란병』 이후에 『제국신문』에 연재되었을 것으로 본다. 배정상, 『이해조 소설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12, 107쪽.

54) 『홍도화』, 1907.7.26. 소설의 광고에서도 『홍도화』의 주요 소재는 조혼임을 밝힌다. 『유일서관 광고』, 1908.12.24: “早婚혼는 痼習”, 『광고』, 『황성신문』, 1908.11.20.

55) 『모란병』의 『제국신문』 판본은 전체소설의 1/4분량인 14회(1909.2.13~28)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후 인용 텍스트는 초반 단행본으로 같음하고, 본문에 (쪽수)로 표기한다. 이해조, 『모란병』, 박문서관, 1911.

조혼의 폐해에 대한 반복적 재현은 근대 국민국가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인식을 유포하며, 독자에게 조혼과 부모 세대는 계몽의 대상이 되고 가정의 윤리는 자식 세대를 주축으로 새로이 구성되는 것이 자명한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 따라서 『혈의 누』(하)에서는 “대한데국 만세”⁵⁶⁾라는 민족적 에토스가 전제되면서 구완서가 부모 세대의 풍속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홍도화』에서는 태희가 『제국신문』의 개가론과 『라란부인전』에 고무되어 시집에서 탈출한다. 『모란병』에서도 금선은 기생이 되기를 거부하다가 송순검의 도움으로 기생집에서 벗어난 후, 소설 『빈상설』을 읽고 “녀즈도 지식”(65)이 있어야 한다는 자각이 생겨 여학교에 다닌다. 부모세대에 대한 저항은 구완서과 옥련, 태희와 상호, 금선과 수복의 결혼, 즉 국가의 근간인 근대적 가정을 선취하는 것으로 결말지어진다.

이와 같이 신소설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통해 새로운 주체, 의식, 윤리, 감각을 팝진하게 그리고 있다. “정부의 당국자와 밋 인민이 각기 이 리치를 싱각호야 법규를 제정호는 것보담 사회의 풍속를 기량함이 데일 긴급호 일”⁵⁷⁾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의식을 신소설은 결혼 풍속에 관한 부모/자식 세대의 윤리적 차이 재현-자식 세대의 고난-근대적 사인으로서의 각성과 근대적 가정 구축이라는 서사구조로 풀어낸다. 이러한 서사구조는 개가 문제에 서도 반복된다. 개가 조칙 역시 1907년에 새로 제정되지만, 여성이 개가 하면 그 “즈손은 청환을 식히지 안는 고로 스대부가 이것을 붓그러워호야 흥호지 안”는 것이 대중적 정서였다. 근대적 가정의 이상인 남녀 모두가 “스스로히 합호야 부부라 칭호지라도 룩례를 갖”춘다면 “인류의 명분을 바르게” 하라는 계몽적 논설이 생산·유포되었지만, 대중의 공감적

56) 『혈의 누』(하), 1907.5.31.

57) 탄희심, 『법규와 풍속의 관계』, 1907.9.19.

동의를 얻기가 어려웠다.⁵⁸⁾ 따라서 『고목화』의 청주댁처럼 개가를 백안시하는 “고약한 풍속”의 피해자가 속출한다.⁵⁹⁾ 청상과부가 된 청주댁은 시집에서 인고의 나날을 보내다가 중국에는 불한당에게 보쌌까지 당한다. 『홍도화』의 태희도 근대교육까지 받았지만 청상과부가 되어 시집에서 투명 인간처럼 지내는 처지가 된다. 그러나 청주댁은 사법제도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탈출하고, 태희는 프랑스 여성 혁명가의 전기와 개가론에 영향을 받아 “국가 사회의 큰 스업을 성취하는 것이 당연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시집에서 탈출한다.⁶⁰⁾ 태희나 “일부종스를 못힐 망정 곤란 중에서 금석갓치”⁶¹⁾ 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 아픈 권진사를 능동적으로 찾아나서는 청주댁은 남녀가 “스스로히 합”해야 한다는 ‘자유’결혼을 당위로 수용하는 한편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근대적 사인으로 거듭난다. 나아가 가정이라는 일상의 근대화를 구축하고 그 규율체제에 가까이 동참한다.

반면에 축첩은 부모/자식 세대 간이 아니라 부/부 간의 윤리적 갈등에 기초한다. 1905년에 축첩금지형법이 제정되었으나 실생활에서 축첩의 풍속은 가부장제의 권위 아래 존속되는 양상을 띤다. 『빈상설』에서 정길은 평양집을 첩으로 두고서는 교육이나 생산적 활동을 하지 않고 근대적 문물을 소비하면서 살아가지만, 그의 처는 첩인 평양집의 농간으로 기생집에 팔릴 위기에 처한다. 정길은 처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교육에 기본금을 삼아 간접(間接)으로 리익을 취하던지 공업이나 상업을 해야 직접(直接)으로 리익을 구”하는 대신, “류성괴 증명약 권연 과즈 등속 눈에 보기 도쿄 귀에 듯기 도흔 것들”⁶²⁾ 소비하는 ‘얼기화군’으로

58) 『론설-너즈의 기가를 허힐 일』, 1907.10.10.

59) 『고목화』, 1907.6.20.

60) 『홍도화』, 1908.7.28.

61) 『고목화』, 1907.8.22.

살아간다. 반면에 『구마검』의 함진해는 아들을 얻기 위해 세 번 결혼하지만 미신에 현혹되어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능한 인물이다. 정길과 함진해는 모두 전통적 윤리에 근거하여 삶을 소비하는 인물이다. 그로 인해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첩, 무당에게 사기를 당하는 무능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소설 결말에서 ‘상해 동아학교’ 생도가 되어 근대적 사인의 길을 예비하거나 판사의 직분을 수행하는 근대적 사인을 성장시키는 조력자가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풍속을 제기하는 방식과 주체가 제기되는 맥락, 그리고 윤리적 지향이다. 우선 『제국신문』 소재 소설에서 풍속은 전통/근대의 윤리적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여 주인공을 고난에 빠트리는 원인으로 제기된다. 그러나 고난은 근대적 제도와 교육을 통해 근대적 사인으로서의 각성과 근대적 가정을 견인해 내는 출발점이 된다. 소설들이 공유한 도식적 서사구조는 독자에게 전근대적 폐습에서 근대적 일상의 제도화로의 지향과정을 당연한 변화로 수용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근대적 윤리로 정향되는 사회적 상상을 공통의 실천과제로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효과를 발현한다. 나아가 근대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사회적 현안으로 수렴된다. 일상의 제도화로부터 촉발하는 계몽의 기획은 작자의 상상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창조되는 것만은 아니었다. 소설적 상상력이 상호텍스트성에 의해 작가-매체-독자로 순환적으로 소통되고 일상의 근대화 와 제도화를 견인하기도 한다. 『괴서』의 내용이 소설의 소재가 되기도 하며,⁶²⁾ 독자가 “일전 데국신문에서 한턴민의 퓌가흔 톨력을 보다가” 든 생각이나 신문 구람으로 “완전한 사름”이 되어간다는

62) 『빈상설』, 1908.1.9.

63) 『모란병』에서 수복이 일본유학 후 문명지식을 배우러 미국유학을 떠났는데, 이는 『괴서』에 실린 박장현의 행적과 흡사하다. 정한경, 『괴서』, 1907.7.11.

고백도 실리기도 하면서 신문의 계몽적 효과는 배가된다.⁶⁴⁾ 그 구체적인 효과는 김윤식, 이시영 등 고루한 양반가문의 개가일 것이다.⁶⁵⁾ 이들의 개가 소식에 “남촌에 사는 권성 녀즈”는 “열네 살에 남편을 여의고 의지할 곳이 없는 가련한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찾기도 한다.⁶⁶⁾ 이 과부의 처지는 『홍도화』에서 조흔과 개가 문제로 인한 고통 받는 주인공 태희로 현현된다는 점에서, 소설이 일상의 근대화와 실제적인 역학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국신문』 소재 소설은 근대적 사인(私人)의 탄생 과정을 구체화한다는 사실이다. 소설의 주인공은 대부분 전통 풍속의 주체인 가문이나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다. 여성들은 풍속의 타자이자 피해자로서 수난을 받게 되고, 서사가 진행되면서 윤리적 자각과 문명 지식, 그리고 풍속 개량의 주체로 탄생한다. 자유의지에 따라 기존 질서에 편입되는 대신 자기 확정의 역사를 구축하는 근대적 사인이 된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정향하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경계를 허물고 근대적 규율 속에서 사회적 자아로 성장할 준비를 한다. 논설을 통해 자강의 주체로 요청했던 근대적 사인과 직분의 실재감을 비로소 소설에서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로 일상의 근대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사회적 상상도 구체성을 갖게 된다. 물론 『제국신문』 논설에서 한편으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문명개화와 국권 회복이라

64) 락턴싱, 『한 텨민에게 디답함』, 1907.7.9. 강상규는 신문의 영향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어 간다고 밝히고 있다. 강상규, 『괴서』, 1908.3.22.

65) 개화파 김윤식(金允植)이 자신의 외손녀를 개가시킨 일이 개가 허용의 여론을 형성한다. 『김씨즈청』, 『대한매일신보』, 1908.7.8; 『導迎和氣』, 『황성신문』, 1908.7.8; 『頑固可笑』, 『황성신문』, 1908.7.15.

66) 『민속의 큰 관계』, 1908.9.8. 『서북학회월보』에 실린 류원표의 글(『민속의 대관건』, 1908.9.1)을 번역하여 총3회(1908.9.8-12) 연재한다. 독자인 우우생의 글도 개가에 관한 글이다. 우우생, 『청춘을 규중에서 늙지 말 일』, 1908.6.23-24; 1908.6.25-26.

는 당면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⁶⁷⁾ 다른 한편으로 일상의 근대화가 급격하게 적용되면 윤리적 혼란을 야기하므로 여성의 공적 활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⁶⁸⁾ 그런데 『제국신문』 소설은 다양한 삶의 국면을 재현하면서, 논설에 드러난 모순적이고 양가적인 태도도 평등성과 호혜성에 기반 한 일상의 근대화라는 사회적 상상을 공통의 실천 과제로 지향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태도로 수용한다.⁶⁹⁾

마지막으로 신/구의 대립구조는 풍속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전제한다. 예컨대 『빈상설』에서 이승지의 유배, 『원앙도』에서 연좌제로 인한 조감사의 몰락, 『구마검』에서 함진해의 절손(絶孫), 『모란병』에서 현고지기의 폐청 및 파산 등은 모두 가(家)의 몰락을 상징한다. 몰락한 가(家)는 조혼, 축첩, 개가 금지 등 조선 풍속의 근원지이며 개혁의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부정된다. 이에 따라 대중독자들은 가(家)를 전근대적 폐습의 진원지로 인식하고, 그것을 지탱했던 풍속이나 윤리 역시 부정하고 계몽의 대상으로 인지하게 된다. 『빈상설』에서도 개화파인 이승지조차 아들 승철의 배필로 사대부 규수가 아닌 옥희를 맞이하는 것이 가(家)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주저한다. 이내 “문벌이니 형세이니 흐”는 것이 아니라 “신랑신부의 성미는 서로 합흐”⁷⁰⁾는 일부일처제의 근대적 가정 윤리를 당위로서 수용한다. 이처럼 조선 풍속/근대적 일상을 구/신이라는 세대인식과 악/선이라는 가치 판단으로 접근함으로써

67) 변월달, 『의무를 다해야 권리를 차질 일(전호 숙)』, 1908.8.8; 윤정원, 『공경의 정신』, 1907.10.30-31; 리지춘, 『녀주교육의 시급론』, 1908.4.1.

68) 일상의 근대화를 지향하면서도 “녀외법을 방한 업시 터노으면 문란혼 폐단”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감도 비친다. 탄희성, 『녀외혼은 폐습을 곳힐 일』, 1907.10.11;

69) Charles Taylor, 『근대의 사회적 상상』, 이상길 역, 이음, 2010, 44-50쪽.

70) 『빈상설』, 1908.1.21.

씨, 조선 풍속은 구세대적이고 악한 것이며 부정의 대상이라고 내면화 시킨다. 조선 풍속의 부정을 통해 근대적 사인이 주축이 된 일상의 근대화 필연성을 갖게 된다.

여기서 『제국신문』 소설의 이중적 효과가 중첩된다. 즉 일상의 근대화를 추동할 때 편지, 우편, 기차 등의 교통수단이나 법률 등 근대적 제도가 자주 개입되기 때문이다.⁷¹⁾ 이는 통감체제의 통치 제도에 대해 가치중립적 시선을 만들어내며 정치적 저항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3-2. 아시아연대론의 파탄과 친미 메커니즘

『제국신문』 소설에서 근대적 사인(私人)은 풍속 개량의 주체가 되어 일상의 근대화를 추동하는 한편, 단기간에 “문명스상을 발달케 하며 이국정신을 비양할” 수 있기 위해 미국유학을 떠나는 모습이 자주 재현된다.⁷²⁾ 근대초기부터 미국은 고종이 가장 호감을 갖는 나라였으며 부유한 물질문명과 근대적 제도가 두루 갖춰진 문명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⁷³⁾ 을사늑약 이후 일본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미국 유학생의 필요성은 더 강조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⁷⁴⁾ 그러나 『제국신문』은 대한제국이 일본의 “로에 마당”이 되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여전히 “일본은 우리와 갓흔 인종”이며 서양에 맞서 동양의 권리를 확장할 것이

71) 『구마검』에서는 근대적 재판제도로, 『빈상설』과 『원앙도』에서는 연좌제의 모순을 타파하는 근대적 법제화로, 『고목화』, 『쌍옥적』, 『모란병』 등에서 기차, 편지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활용과 통감통치의 말단 관리인 순검의 개입으로 주인공의 문제를 해결한다.

72) 외국에 유학하는 리익, 1903.1.22-23; 『문설』, 1906.2.13; 吞海生, 『문설』, 1907.6.11

73) 오영섭, 『『독립신문』에 나타난 미국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7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1, 7-28쪽.

74) 김윤선, 『『帝國新聞』에 나타난 美國 留學과 留學生 寄書(便紙) 研究 : 近代啓蒙談論의 樣相과 글쓰기의 變化를 中心으로』, 『어문연구』 38권 1호, 2010, 313-314쪽,

라는 아시아연대론에 거는 기대감도 공존하였다.⁷⁵⁾

그러나 정미7조약으로 “일본 군스 몇만명이 나와 장안을 도륙”⁷⁶⁾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야기되는 가운데 일본은 더 이상 대한제국의 지지자도 선망하는 문명국의 모델도 될 수 없다는 확고한 판단이 서게 된다. 이에 따라 『제국신문』은 일본 중심의 아시아연대론과 결별한다. 일본이 서구의 세력을 방어하는 아시아의 연대자가 아닌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려는 제국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미국이 문명국 이상의 의미로 수용된다. 현실정치와 외교에서 일본에게 걸었던 희망은 역학관계상 일본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부강한 미국과의 연대와 기대, 선망으로 선회한 것이다. 그런데 서구 일반이 아닌 미국에 대한 선망이 강한 이유는 러시아나 영국에 대한 배신감에서 비롯된다. 러시아는 러일전쟁으로, 영국은 제2차 영일동맹으로 국내에서 입지가 좁아진다. 특히 영국은 “일본국이 한국에서 정치상 군스상과 및 경제상의 탁월한 리익을 가짐을 승인”⁷⁷⁾하는 대신 인도 지배를 승인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국내 여론에서 영국에 대한 배신감이 고조된다.⁷⁸⁾ 이러한 국제 역학관계 속에서 일본과 대립하고 있던 미국에 대한 『제국신문』의 심리적 의존도가 높아간다. 그 결과 미국의 문명제도나 미국 유학생의 경험담, 미국 유학의 필요성 등은 모두 미국을 욕망하는 표상체계가 되어 버린다. 일종의 친미 메커니즘이 형성된 것이다.⁷⁹⁾ 정미7조약 이

75) 『문설』, 1905.4.12; 呑海生, 『살기를 닦토는 시덕』, 1907.6.12. 아시아연대론은 1899년 제1회 만국평화회의때 제기되고 러일전쟁을 계기로 확산된다. 『문설』, 1899.12.8-9; 1900.8.1-2; 1900.8.15; 1900.10.5; 1904.9.15; 1904.11.10; 『잡보』, 『제국신문』, 1904.11.23; 『논설』, 『독립신문』, 1898.4.7; 장지연, 『아환선생문답』, 『황성신문』, 1904.5.6.

76) 탄희성, 『피란가는 자를 위하야 혼탄흙』, 1907.7.24.

77) 『신협약에 관한 일본 외무대신 립동씨의 말』, 1907.7.31.

78) 1922년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1905년 미국 중재로 러일전쟁 강화회담이 추진되고 한국의 보호국 논의도 진행되었다.

79) 1907년 경 미국 유학생은 일본 유학생의 10%밖에 안 되었으며, 130명 중 6명만이 대

후 유독 미국 유학생이나 미국 이민자들의 글이 소개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정미7조약의 부당성을 폭로하거나,⁸⁰⁾ 한인 단체 결성과 한인 신문 발간의 취지를 전하거나⁸¹⁾ 의연금을 보내오거나⁸²⁾ 하는 미국 유학생의 글들은 모두 미국이라는 의미 체계에 포섭된다.

이처럼 반일 감정이 고조됨에 따라 친미 메커니즘은 더욱 강화된다. 반일 감정은 일본인들의 행동과 말이 전달되면서 심화된다. 즉 이토 통감은 일본이 “정치상 군스상과 및 경제상의 탁월한 리익을 가”졌기에 한국에서 “일본의 세력을 능히 비척치 못”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해 한다. 또한 일본 역사학자는 한국인은 “가히 가라치지” 말아야 한국에서 일본의 지배성이 고착화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⁸³⁾ 더욱이 “서양인은 우리 일본인을 증오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서양에 유학하는 것을 허가할 수 없다”며 미국과 서구로의 유학을 억제하고, 미국 유학생은 관리로 등용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도 마련하였다.⁸⁴⁾ 한국인을 국제사회로부터 단절시키는 방식으로 한국 지배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통감부의 검열 때문인지 매체의 자기검열인지 친미 메커니즘을 직접적으로 표명하는 『제국신문』의 「론설」, 「괴서」 등이 1908년 6월 이후 지면에서 사라진다.⁸⁵⁾ 하지만 『제국신문』 첫 연재소설인 이인직의 「혈의 누」(하)부터 1909년 초에 연재를 시작한 「모란병」까지 친미 메커

학생이었다. 김근배, 『한국 근대 과학기술 인력의 출현』, 문학과 지성사, 2005, 70쪽.

80) 1907.9.13; 1907.10.22; 1908.1.19; 1907.7.11; 1908.1.9.

81) 1907.11.9; 1907.12.22; 1908.1.22-23; 1908.1.30; 1908.4.2; 1908.4.11

82) 1908.1.9; 1907.11.22.

83) 「이등통감의 공로」, 1907.9.2; 1907.6.16-8 3.

84) 김근배, 『한국 근대 과학기술 인력의 출현』, 문학과지성사 2005, 82쪽.

85) 1909년 3월 이후 자료 미발굴로 확정할 수 없으나, 미국을 표상하는 글은 우우싱의 글이 마지막이다. 우우싱, 「청춘을 규중에서 늙지 몰 일」, 1908.6.23-24.

니즘은 유지된다. 『혈의 누』(하)는 옥련의 조부와 어머니가 유학 중인 딸 옥련과 옥련의 아버지(김관일)를 방문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갔다가 귀국하는 이야기이다.⁸⁶⁾ 이 과정에서 그들이 경험한 기차, 화륜선, 호텔 등의 근대적 문명 체험이 장황하게 묘사된다. 장황한 묘사를 통해 주인공들이 장기적인 미국 유학에서 체험할 문명을 더 의미 체계화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여도 나라를 위하여” 민족적 에토스를 환기시키며 미국 유학을 해야만 하는 당위를 성립시킨다.⁸⁷⁾

『고목화』, 『월양도』, 『모란병』에서도 미국 유학은 ‘조선혼’이라는 상상의 주체를 환기시킨다. 『고목화』에서 조박사는 주인공의 조력자로 원래는 야박하고 경솔한 사람이었지만 “십 여 년 전에 미국 화성돈 가서 대학교에 공부하여 의학을 졸업하고 박사까지 된” 후에야 “본국으로 돌아와 원장 기계와 약⁸⁸⁾을 마련한 ‘조선혼’을 지닌 근대적 사인으로 성장한다. 그 결과 ‘조선혼’을 공유하는 동포라는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동포에게 금전적 보상이나 영달에 기대지 않고 의사로서 직분을 수행하는 인물이 된다. 『월양도』에서 금주와 말불은 연좌제, 인신매매 등 조선의 야만 풍속으로 인해 고통 받았지만, 국권 회복의 사명감을 실천하기 부모와 함께 미국(하와이) 유학을 결심한다.⁸⁹⁾ 『모란병』에서도 금선 역시 수복과 결혼 후에 “공익에 헌신(獻身)코져”(83) 미국 유학을 갔다 문명지

86) 1913년 『매일신보』에 연재된 『모란봉』에는 『제국신문』 연재본에 대한 언급 없이 『혈의 누』(상편)의 후편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으며, 옥련이의 귀국 과정과 귀국 후의 이야기만 담겨 있다. 이인직, 『모란봉』, 『매일신보』, 1913.2.5-1913.6.3.

87) 『혈의 누』(하), 1907.5.27.

88) 기독교적 정신에 기반 한 직분과 관련을 찾을 수 있으나 이는 추후 논의로 한다. 『고목화』, 1907.8.3.

89) 미국 포와(하와이)로 유학을 떠나는 이유는 동반한 부모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1903.1-1905.8에 하와이 이민자 수는 7,291명일 정도로, 미국 지역 중 가장 한국인이 많았다. 공정자, 『구한말 하와이 이민자의 이민 전 거주지 연구 : 처음 1년 반(1903년 1월-1904년 6월) 동안의 경우』, 『교육문화연구』,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03, 62쪽.

식을 습득한 다음에 귀국한다. 금선과 수복은 미국유학을 통해 “전국 인종의 환영”(107)을 받고 귀국할 정도로, ‘조선혼’을 유지 성장할 근대적 사인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제국신문』의 친미 메커니즘은 ‘조선혼’이라는 민족적 에토스를 상기시키며 근대적 사인의 성장을 촉구한다. 반면에 일본이나 상해는 유학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현실에의 도피로 재현된다. 『모란병』에서 수복이 인천까지 사람을 구하려 간 김에 일본유학을 떠나지만 “나라에 빛 잇는 선비”가 되기 위해 미국 유학으로 전환한다. 『빈상설』에서도 서정길은 가정불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옥희에게 속은 것이 부끄러워 상해 유학을 핑계로 집을 떠난다. 『모란병』에서 “조국을 헌신짝 버리듯”하고 유학한 외국 유학파와 “몇히 안인 동안에” 상등인물로 성장한 미국 유학파를 구별짓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유학 자체를 문명개화의 방도로 간주하면서도, 외국/미국의 구별짓기를 통해 미국에 대한 선망, 기대, 심리적 의존도를 고양하고 확산시킨다.

미국 유학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도, 의식, 윤리, 인물 등도 미국의 표상 체계로 작동한다. 『빈상설』에서 주인공 이난옥이 평양집과 하녀 금분의 포악질에도, “것친 말이 나올가 럼녀를 햏야 일이지장에 미국 디통령이 구화 담판하듯 평화”⁹⁰⁾롭게 대응하는 이지적 인물로 비유된다. 상호텍스트성에 의해 이난옥의 아버지 이승지나 『홍도화』의 김참서처럼 “서양각국에를 넓이 류람햏야” “세계 풍속도 익히” 아는 지식인도, “국민의 혼분즈”로서 근대적 사인의 직분을 자각하는 행위도 모두 미국이라는 의미 체계에 포섭된다.⁹¹⁾

그런데 『제국신문』 소재 소설에서 친미 메커니즘은 일상의 근대화가

90) 『빈상설』, 1907.10.15.

91) 『홍도화』, 1908.8.26.

추동할 때와 달리 형상화가 구체적이지 않다. 문명화의 조급성과 국권 회복의 절박성과 함께 재현되는데, 이는 몇 가지 잠재적 위험성을 갖는다. 먼저 주인공들이 학습하거나 경험한 미국의 문명 지식이나 제도는 지배담론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조선혼”의 수호자이자 직분의 수행자인 근대적 사인으로 성장하려고 하지만, 문명에의 습득 과정에서 국가/지배담론/상상의 주체를 성찰하고 직분의 내용과 범주를 구획할 수 있는 자아로 성장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인직의 소설에서 발견되는 예이다. 이인직이 친일 매체인 『대한신문』 사장으로 취임한 후 창작한 소설 『은세계』, 『치악산』에서 미국 유학을 개인 성장의 주요한 계기로 삼지만, 민족적 파토스가 소거된 채 지배담론으로 수렴되는 자아, 곧 친일적 자아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재현한다.⁹²⁾

또한 친미 메커니즘과 사인의 지나친 강조는 계몽의 파편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사적 영역의 풍속 개량에 집착할 경우, 미시적 영역을 초과할 여력이나 정치적 개혁으로의 확장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진다. 『제국신문』 소설에서 미국 유학 과정이나 유학 후에 ‘조선혼’의 당위성을 발언하는 경우, 『고목화』의 조박사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과 질을 채우는 근대적 사인의 역할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일상의 근대화에 대한 직분의 강도가 민족적 에토스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과 자신의 문화를 부정하는 식민지적 무의식의 힘으로 작동·분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는 대한제국이 서구적 근대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만한 문명화의 토대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사실의 반증이자 수리이다.

92) 『대한신문』은 『만세보』의 후신으로 1907.7.12일에 창간된 친일 신문이다. 여기에 연재된 『치악산』의 주인공은 계모를 피해 일본 유학을 떠나고, 『은세계』의 주인공들은 미국 유학 후 국민의 직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들의 직분은 통감부의 정치권력으로 수렴된다.

마지막으로 친미 메커니즘은 문명의 주체를 욕망하지만 문명의 타자로 전략할 위험성도 있다. 친미 메커니즘은 미국 문명에 대한 일방적 추수가 아니라 민족적 에토스와 문명에의 욕망을 선별적으로 충족시키는 능동적인 행위를 기대한다. 『빈상설』의 서정길이나 『홍도화』의 리직과 같은 열개화꾼들은 문명을 소비하면 문명인이 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 스스로 문명의 주체라고 오인하지만 문명을 기획하고 선별하는 주체가 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문명의 주체를 욕망하는 맹목적 지지자가 될 뿐이다. 『혈의 누』(하)에서 구완서에게서도 그러한 단초가 발견된다. 동창회 참여와 같은 소소한 경험조차 모두 문명의 습득이며 공적 활동이라고 오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문명에의 욕망이 민족적 에토스를 소거한 채 민족적 열패감과 결합될 경우 문제적이다. 나/타자, 대한제국/미국, 야만/문명이라는 대립적인 구조 속에서 욕망이 재조직되고, 미국의 제도와 풍속, 국민성 등을 문명으로 대한제국의 제도와 풍속, 국민성 등을 야만으로 일반화되고 부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제국신문』의 대중 계몽 방법과 역학적 한계

대한제국기는 근대 국민국가를 구축하려는 사회적 상상 속에서 문화의 주체와 방법을 모색하는 시기였다. 문명 후발국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제사회와의 역학관계 속에서 만국공법에 기반하여 자주국으로 승인받으려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고, 아시아연대론에 기대어 근대 국민국가로의 도약을 소망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근대 국민국가에 결핍된 것들을 감각하고 그것을 채우며 존재의 조건을 변화시키려는 욕망들이 촉발되고 이 욕망을 투사하는 역동적 표상들이 문명담론으로

현현된다. 그러나 을사늑약에 이어 1907년 정미7조약이 체결되면서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근대 국민국가 만들기 방식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다. 국민국가의 구심체인 '대주체'를 상실하게 되면서 새로운 국민국가 만들기의 방식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맞서 『제국신문』은 소설을 새로운 계몽의 방법을 개발한다. 그러나 이전 시기처럼 부녀자와 하층민을 계몽하는 대중매체라는 자기규정이나 풍속 개량과 실력 양성론에 근간을 둔 자강론의 전개는 고수한다. 다만 소설을 통해 독자를 끌어들여 재정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강화된 신문지법의 출판 통제를 피하면서도 실생활의 팝진성 속에서 독자와 국민의 공통의 목표, 지향, 가치, 방법을 모색하고 창출하여 계몽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소설이 지닌 팝진성과 서사를 통해 자아 정립, 타자와의 평등한 관계 설정, 새로운 가정과 가족의 구성 방식, 풍속 개량, 자강의 방법을 계몽한다. 그리고 국권 회복과 문명개화라는 사회적 상상을 공유하고 형성하는 근대적 주체이자 동포를 능동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민족적 주체로서 직분을 수행할 근대적 사인의 탄생을 요청한다. 이처럼 소설은 논설이나 기서, 별보 등을 통해 민족적 에토스를 환기하는 상상의 주체로 '조선혼'을 소환하여 근대 국민국가의 공통감을 조성해 왔던 것과는 다른 구체성과 실재감을 구성한다.

동시대의 다른 신문 매체의 소설에 비해, 『제국신문』의 소설들은 대중들의 생활세계와 감정구조를 반영하는 한편 일상을 제도화하고 그것을 추동하는 근대적 주체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대중 독자와의 공통감을 폭넓게 형성하고 있다. 즉 일상의 근대화는 조혼, 개가, 축첩이라는 결혼 풍속의 개량이라는 측면에서 관점화되고 팝진하게 그려진다. 근대적 주체로의 자각과 실력 양성에 의존한 계몽의 기획이 추진되

는 상황에서, 가정은 당연히 일상의 윤리와 근대적 제도와 관습을 습득하고 스스로를 규율하면서 근대적 사인을 생산하는 제도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도식적인 서사구조와 선악의 대립구조를 통해, 대중독자들은 가(家)를 전근대적 폐습의 진원지로 인식하고, 그것을 지탱했던 풍속이나 윤리 역시 부정하고 계몽의 대상으로 인지하게 된다. 그동안 풍속의 타자였던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로 일상의 근대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사회적 상상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제국신문』의 주요 독자층인 여성과 상상적 공통감을 형성한다. 또한 『제국신문』 소설에서 대주체를 복원하기 위한 미국 유학을 선택하는데, 이는 반일 감정과 국제간의 역학관계로 형성된 친미 메커니즘의 반영이다. 따라서 미국유학과 달리 일본이나 상해유학은 유학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현실에의 도피로 재현된다. 그러나 미국 유학 과정이나 유학 후에 '조선혼'의 내용과 질을 채우는 근대적 사인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 형상화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이처럼 『제국신문』 소설은 폐간 때까지 일제의 침략에 직접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도구는 아니었지만, 문명개화와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사회적 현안을 구체화하고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는 데에 기여한다. 그러나 약육강식의 국제적 역학관계에 유연하게 대응할 만한 정치적 개혁을 추동하지는 못한다. 근대적 사인의 윤리적 자각에 기초한 자강론은 정치·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일본의 침략적 야욕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결과 '조선혼'을 통한 대주체의 복원이라는 희망적 결과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신문』의 소설이 근대 '소설'의 내용과 형식을 구성하는 한편 일상생활 세계 속에서 근대적 감각과 윤리, 가치, 일상의 제도화로의 지향과정을 꺾진하게 그려내고 근대적 주체를 창출하고 상상적 공통감을 구성하며 대주체를 환기하려던 대중 계몽 기획의 의미와 성과가 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제국신문』, 1989.8-1910.8.
계명문화사 편집부 편, 『신소설 전집』, 계명문화사, 1987.
근대초기매체연구회 편, 『제국신문 미공개 논설 자료집』, 현실문화, 2014.
김영민·구장률·이유미 편, 『근대계몽기 단형 서사문학 전집』(상/하), 소명출판, 2003.

2. 논저

- 권영민, 『이해조의 소설관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3권 1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78, 69-77쪽.
근대초기매체연구회 편, 『제국신문과 근대』, 현실문화, 2014.
김복순, 『『제국신문』의 함: “여성의 감각”의 탄생』, 『민족문화사연구』, 민족문화사연구회, 2013, 343-385쪽.
_____, 『『제국신문』 학문론의 실학적 변용과 학지의 타당성』, 『여성문학연구』 3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6-44쪽.
김현주, 『『제국신문』에 나타난 혼인제도와 근대적 파트너십』, 『한국근대문학연구』 23호, 한국근대학회, 2011, 123-160쪽.
배정상, 『『제국신문(帝國新聞)』소재 이해조 소설 연구』, 『동양학』 4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11, 131-149쪽.
송민호, 『열재 이해조의 생애와 사상적 배경』, 『국어국문학』 156호, 국어국문학회, 2010, 241-271쪽.
이대형, 『『제국신문』 소재 정운복의 논설 연구』, 『대중서사연구』 31호, 2014, 207-238쪽.
최기영, 『『제국신문』 연구』, 서강대언론문화연구소, 1989.
_____, 『대한제국기 신문연구』, 일조각, 1991.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박미애 역, 『문명화 과정 1』, 한길사, 2002.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문명론의 계략을 읽는다』, 문학동네, 2007.
에드워드 W. 사이드,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02.

Abstract

The Study on the Change of World-consciousness
and its Novelistic Reproduction Aspects appeared
in 『*Jekuk Sinmun* (The Journal of Empire)』

Kim, Hyun-Ju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aimed at defining 『*Jekuk Sinmun*』's identity as modern mass media, considering its romantic reappearance aspect and its meaning according to change in World-consciousness, focusing on 9 new-style novels that were included in 『*Jekuk Sinmun*』.

The era of the great han empire was the period that tried to find main agents of civilization and the method in social imagination which tried to build a modern Nation State. Due to the protectorate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concluded in 1905 and the Japan-Korea Treaty of 1907, 『*Jekuk Sinmun*』 developed a new method to enlighten the public in a novel while keeping to the characteristic of strenuous efforts that was based on the improvement of a custom and ability fostering theory, which Our goal could no longer promote to build a modern Nation State.

Therefore, 『*Jekuk Sinmun*』 recalled 'the ethos of Korean(조선혼)' through leading article, at the same moment; it asked modern individual(私人) for coming into the world. As such editorial reasonable argument was reproduced in a novel, it enlarged sympathy to the public. While a novel improved Korean theatrical practice, especially, and could give an impetus to institutionalization of daily life, it tried to produce the mechanism of pro-American and expanded for restoring the great main agent.

As the result, while a novel in 『*Jekuk Sinmun*』 wrote modern sense, ethics, value and orientation process to institutionalization of daily life in everyday world, it played a role as creating modern main subject, constructing imaginative common sense and recalled the great main agent. The novel's project of enlightenment, however, was convergent institutionalization of daily life in value neutral, and could not give an impetus to political reform that was able to cope with flexibly weak-to-the-wall kind

348 대중서사연구 제21권 2호

of international dynamics.

(Key words: 『Jekuk Sinmun(The Journal of Empire)』, World-consciousness, novel, Nation State, the ethos of Korean(조선혼), individual(私人), theatrical practice, daily life, Mechanism of Pro-Americanism, Popularity)

논문투고일 : 2015년 6월 30일

심사일 : 2015년 8월 1일

수정완료일 : 2015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5년 8월 13일